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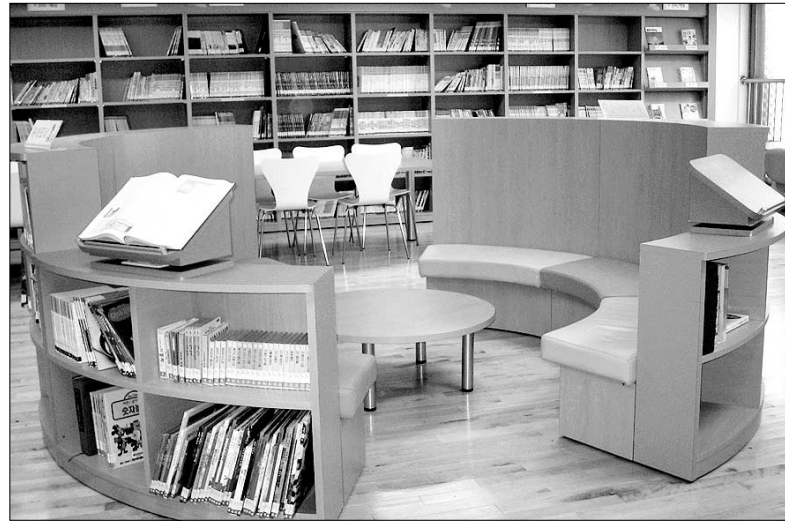
애들이, 심인당에 책보러 오렴

진각종, 수원에 화홍 어린이도서관 개관... 책 3천권·비디오등 구비

불교계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에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 수원시 북수동 진각종 유가심인당(주교 혜정)은 5월 30일 '화홍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화홍어린이도서관은 사비를 들여 설립한 뒤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계 최초의 어린이 공공도서관이다. 화홍어린이도서관은 유가심인당 1층에 90여 평 규모로 도서열람실과 시청각실 등을 갖추고, 3천여 권의 장서와 각종 만

화, 학습비디오 등을 구비해 놓았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도서열람실은 60여 석의 열람석과 부모가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모자독서실',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독서실'이 마련돼 있다. 또 시청각실에서는 어린이를 위하여 전래동화나 창작동화를 입으로 말을 해서 들려주는 구연동화 시연, 다큐멘터리 및 어린이 영화 상영, 종이접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가심인당 주교 혜정 정사는 "어린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독서의 능력과 기본습관을 가르치는 효과와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종교적인 특색을 떠나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하여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 유가심인당은 진각종이 도심 포교의 전형모델 개발과 경기지역의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26일 수원에 확장본사를 마치고 헌공불사(낙성법회)를 병행한 바 있다.



5월30일 유가심인당 1층에 문을 연 화홍 어린이도서관 내부모습.

유가심인당은 대지 412평, 건평 174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심인당과 자성학교, 법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news.com

박종철 인권상 이동진·최승환씨

박종철 인권상 위원회(위원장 지원)는 제3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이동진(1999년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씨와 최승환(2001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씨를 선정했다. 인권상 위원회는 "오랫동안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한총련 활동을 통해 조국통일 투쟁에 열의를 보여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동진씨와 최승환씨는 각각 대구교도소와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시상식은 6월 7일 오후 2시 부산 동명병원에서 진행된다. 유철주 기자

지구촌공생회, 해외자원봉사캠프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는 7월과 8월에 각각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해외자원봉사 캠프를 진행한다. 7월 16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이 캠프에서는 농활과 텀플스테이, 우물파기, 양코르와트 탐방 등을 병행하며, 8월 14일부터 10일간 열리는 라오스 캠프에서는 유치원수업과 라오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 모집 6월 10일까지. 02.3432-6770 유철주 기자

조계사 3000배정진 성금전달

조계사(주지 원담)는 봉축기간동안 3000배 용맹정진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5월 24일 총무원 사회부장 정남 스님에게 전달했다. 조계사는 4월 30일 조계사 신도회와 불교대학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양양·고성 산 불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3000배 철야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조용수 기자

재가연대, 활동가에 쌀 추가 지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쌀을 지원해 화제가 됐던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5월 28일부터 인터넷(www.buddha21.org)을 통해 신청을 받아 쌀 60kg을 10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쌀을 지원하고 있는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지원자 선정을 중요한 이후에도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있어 추가로 쌀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경천사지10층석탑 이건기 안치

최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건기(무)로 이관이 완료돼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천사지10층석탑의 이건기(修建記)가 5월 26일 탑 속에 안치됐다. 박물관측은 경천사탑이 용산 새박물관에 세워지는 과정을 찍은 이건기를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들어있던 3층 난간석 사리공(직경 18.2cm, 높이 11.5cm)에 안치했다. 이 이건기는 다시는 옮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금판에 새겨져, 신소재인 티타늄으로 만든 합에 진공상태로 보관됐다. 박물관은 광복 60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을 전후하여 경천사 10층석탑의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조계사 밀어버리겠다” 극언 물의

통영발전협, 조계종 협박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를 방문한 통영발전시민협의회(공동대표 노낙현 등, 이하 통발협) 임원이 “조계사를 밀어버리겠다”는 극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통발협 박현표 집행위원장은 5월 26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도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통영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케이블카 건설을 조

계종이 반대한다면 6월 2일 조계사를 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발협 임원들은 “15만 통영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케이블카가 설치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조계종 사회부는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조만간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東大 불교대학발전위원회 학부·교과과정 개편 논의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답 스님)는 5월 20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학제와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주제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불교대학 교수 법산 종호 스님, 조용길 김종욱 김호성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에 임했다. 참가자들은 주로 스타종교·타학문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위해 학부를 교학선학전공

과 실천응용전공으로 재편 △범어와 한문 등 언어교육 강화 △현장 실무형 인재육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불교대학이 취업중심의 교육에 편향되어서는 안되며, 특수대학처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미얀마에 한국인 전용 위빠사나센터

미얀마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전용 수행센터가 생긴다. 김천 백련암 주지 혜성 스님은 5월 25일 “미얀마 양곤 인근 4만평 부지에 선방과 식당 목욕탕 등을 갖춘 한국인 전용 위빠사나 수행처인 담마마따가 마하시센터를 12월 5일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라고 밝혔다. 담마마따가 마하시센터는 음식, 문화,

언어적인 문제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건립되는 것. 현지 불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을 위해서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미얀마 통역자가 상시 근무하며 수행을 돕게 된다. 수행지도는 천안 호두마을 선원장 우에인다가 사야도 스님이 맡았다. 최대 수용인원은 최대 70명 정도. 수행센터는 미얀마 빈곤과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로도 활용된다. 강유신기자

만해대상 평화부문 달라이라마 선정

학술-지관 스님, 문학-소잉카, 실천-함세웅 신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 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달라이라마, 문학부문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인인 소잉카씨, 실천부문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 학술부문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장 지관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중국의 티베트의 정치·종교지도자로서 조국의 자유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국제사회의 갈등·인권·환경 문제 등에 화합과 상생의 불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공로 등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98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소잉카는 ‘감옥으로부터의 시’ 등의 시집

과 ‘혼들의 계절’ 등의 회극집을 다수 출간한 세계적인 문인으로, 1986년 ‘뉴지대의 사랑’으로 아프리카 흑인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사독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하며 주목받은 함세웅 신부는 사회보호법폐지운동 등 인권선장을 위한 활동과 북한 지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지관 스님은 해인사 강원에서 후학과 불교학자 양성에 기여한 점, 11대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며 많은 인재를 사회에 배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

로 선정됐다. 특히 최치원으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고급의 금석문을 발굴·수집하고 정리·연구해 한국금석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한문학 및 불교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업적에 큰 점수를 얻었다. 만해대상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하고 백담사 만해마을이 주관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8월 12일 오전 11시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신재 기자

달라이라마 8월 방한할까

달라이라마가 제 9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측은 “달라이라마가 수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거나 수상을 소감도 보내왔지만 8월의 한국 방문 여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계획대로라면 방문이 성사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실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의 방한 추진은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뒤부터 거의 주기적으로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이라마 방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어 이번 만해대상 수상을 계기로 방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는 물론이고 정부측도 최근 “상황만 되면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달라이라마 역시 최근 현대불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상황에 달라지겠지만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신재 기자

캄보디아 고아원 내년 6월 완공

실천승가회, 5월 공사 착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성관·효림, 이하 실천승가회)가 캄보디아에 건설하고 있는 고아원 및 교육시설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가 내년 6월 공식 개원한다. 이에 앞서 2004년 10월 캄보디아 정부와 BW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실천승가회는 올해 5월 초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1만2000평의 대지에 세워지는 BWC에는 남녀 고아원 건물 각 1동과 영어 및 한국어 교육시설,

컴퓨터실, 도서관, 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BWC 인근에는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해 어린이들의 환경교육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BWC 건립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국제NGO로 정식등록하고 현지에서 인도주의적 구호사업과 교육사업, 마을 개발사업등을 벌인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파주 보광사에 비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1만2000평의 대지에 세워지는 BWC에는 남녀 고아원 건물 각 1동과 영어 및 한국어 교육시설,

유철주 기자

<모 연 안 내>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산 신계사에 민족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연등을 담니다.

특히 이번 “2005 민족화합을 위한 금강산 신계사 등달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신계사의 빈터에 등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낙성된 대웅보전 앞과 온정각 일대에 연등을 밝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영산, 불교의 성지인 금강산에 연등을 밝힘으로써 남북의 불교계가 공동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남북불교 교류를 위한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뜻 깊은 행사에 전국 각 사찰과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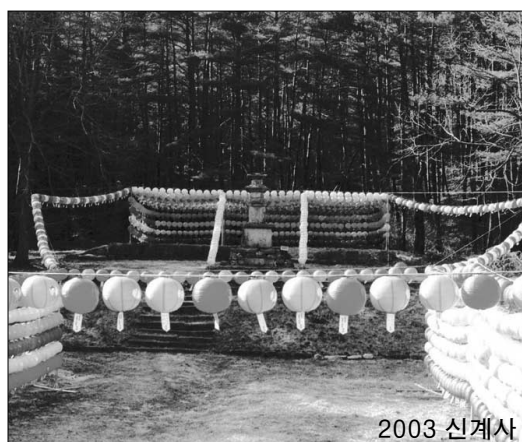
- 행사명 : 2005년 민족화합을 위한 금강산 등달기
- 설치장소 : 금강산 신계사지, 온정각 휴게소 일대
- 설치기간 : 불기 2549(2005)년 4월 22일 ~ 6월 30일
- 모연기간 : 불기 2549(2005)년 4월 11일 ~ 6월 30일

- ▶ 모연금 : 통일기원등 (봉축등)
 - 사찰 및 수행단체 : 10만원 이상
 - 개인 : 5만원 이상
- ▶ 접수방법(계좌입금 후 연락바랍니다)
 - 국민은행 : 023501-04-007308
 - 농협중앙회 : 053-01-256794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 ▶ 연락처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TEL : 02)2011-1818 / FAX : 02)720-0532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 TEL : 02)2011-1832 / FAX : 02)735-0614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002 신계사 연등법회



2003 신계사



2004 온정각



2005 신계사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불교신문사 후원 : 통일부, (주)현대아산